

# 방송과 영화의 컨버전스

이성욱 | 영화비평가

2003년 하반기, 프랑스의 『카이에 뒤 시네마』가 방송과 영화의 교류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방송 자본이 영화 제작에 일정한 폭으로 참여하면서 상업영화가 아닌 작가영화의 다양한 시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나라다. 『카이에 뒤 시네마』의 문제제기는 방송 자본이 영화계를 압도하면서 영화의 예술적 측면보다는 방송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화의 내용과 형식이 종속되는 흐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우리와 처지는 전혀 다르지만 『카이에 뒤 시네마』의 반발에 일리는 충분히 있어 보였다.

## HD영화에 대한 관심

2003년 하반기, 프랑스의 『카이에 뒤 시네마』가 방송과 영화의 교류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의외였다 싶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방송 자본이 영화 제작에 일정한 폭으로 참여하면서 상업영화가 아닌 작가영화의 다양한 시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나라였고, 그것이 법으로 규정한 쿼터의 결과 일지라도 사실상 방송과 영화의 교류가 단절된 우리의 경우에 비추어 부럽기까지 했으니까.

『카이에 뒤 시네마』의 문제제기는 방송 자본이 영화계를 압도하면서 영화의 예술적 측면보다는 방송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화의 내용과 형식이 종속되는 흐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우리와 처지는 전혀 다르지만 『카이에 뒤 시네마』의 반발에 일리는 충분히 있어 보였다.

어쨌든 한국영화의 자본조달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고 방송 자본과의 교류는 절실히 보이는데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더니 갈수록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기에는 디지털과 DMB라는 방송 환경의 변화가 필요 조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영화계 역시 이런 콘텐츠의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터다.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03년 여름 전편을 HD로 사전 제작한 MBC 대하드라마 <다모>의 성공은 '시도, 보험' 정도로 여겨지던 방송사의 HD영상물 제작에 불을 당겼다. 2004년 들어서는 디지털방송에 대한 대비와 맞물리면서 HD가 스포츠, 다큐멘터리 등 전방위로 영역을 넓혀갔다. 다큐멘터리 <출가> <도자기>와 같은 작품들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의 성과를 가시화한 것일 것이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해신>을 비롯하여 드라마 시티, 베스트극장으로 대표되는 단막극 영역도 HD가 ENG를 밀어내고 안방 브라운관의 '고화질' 시대 개막을 알렸다.



2003년 MBC 월화 드라마 <다모>



과 방송 설비를 뒤늦게 최신 설비로 단장하면서 자연스레 디지털화 한 중국의 경우, HD영화는 제작의 화두에 올라 있고 영진위는 현장 답사를 거쳐 모종의 판단을 내렸다. 영진위의 김혜준 사무국장은 “극장에서 제작비를 회수해야 하는 현 유통 상황에서 비주류영화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빠르게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위협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예산 HD영화를 앞세워 두드러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결과가 방송(HD)영화 제작지원 사업으로 나타났. “디지털, 즉 HD 기술을 매개로 영화와 방송의 제작 노하우를 융합하고, 한국영화의 상영 원도를 다양화한

방송보다 접근은 늦었지만 영화도 상황은 마찬가지. 2004년 대표적인 슬리퍼 히트작인 <시실리 2Km>는 파나소닉의 HD카메라 베리캠으로 촬영된 작품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시도가 봉만대 감독이 HD로 만들어 선보인 TV영화 연작 <동상이몽>이었다. 영화 한 편의 평균 제작비에 훨씬 미치지 않는 15억 원으로 TV용 영화 6편을 찍었고, TV방영과 온라인의 VOD로 꽤 좋은 호응을 얻었다. 예로 장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상이몽>이 한국형 TV영화의 시동을 걸었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미국의 경우를 많이 참고했다는 OCN의 김의석 국장은 “HBO가 제작한 시리즈 중 에미상을 수상한 작품은 무려 17편에 이른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섹스 & 시티>나 <밴드 오브 브라더스> 등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나. 미디어 발전 단계로 볼 때, TV영화 제작은 뉴미디어 시대의 한 흐름이다. OCN이 그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상이몽>처럼 HD가 방송과 영상의 가교가 되고 개별 분야의 새로운 방법론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방송가와 충무로에 공유되고 있다. TV를 겨냥한 HD영화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극장



봉만대 감독의 <동상이몽>. 한국형 TV영화의 시동을 걸었다.



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처음 만들어진 이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영진위가 방송 쪽 파트너인 KBS와 함께 지원작을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50편 가까운 작품이 경쟁을 벌였고 최종심사를 거쳐 5편이 3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영진위는 남선호 감독의 〈영화감독이 되는 법〉, 유상욱 감독의 〈그 남자가 두고 온 섬〉, 여균동 감독의 〈비단구두 사 가지고...〉 등 3편을, KBS는 김의수 PD의 〈피아노 포르테〉, 김태용 민규동 조근식 감독의 〈아이 엠 소리〉 등 2편을 택했다. 지원작 선정이 “작품성을 중심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제작 가능한지의 여부 또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영화와 방송의 체계적인 교류를 위한 기준으로는 알맞아 보인다. MBC도 싸이더스와 HD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하고 권석장 PD를 시작으로 닷을 올린 상태다.

### DMB의 도입

방송과 영화의 융합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것이 DMB다. DMB가 가져올 변화의 핵심은 2C로 요약된다. 콘텐츠와 컨버전스(Convergence: 융합 집중). DMB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할 절대요소는 킬러 콘텐츠의 확보다. 이 때문에 생산주체인 영화사나 제작사를 포함한 콘텐츠 제공자의 가치가 상승 일로다. 최근 SK텔레콤이 배우 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영화제작까지 하고 있는 IHQ의 지분을 인수하여 2대 주주로 등극한 사례나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충무로와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은 DMB를 위한 콘텐츠 확보 전쟁 때문이다. DMB가 가진 이동, 짧은 사용시간, 작은 단말기라는 미디어 사용 환경을 고려하면 주로 사용될 콘텐츠는 뉴스와 영화를 필두로 한 단막극 형식의 동영상물이 될 수밖에 없다. 각 컨소시엄이 내놓은 DMB 사용

자 선호도 조사 결과도 이를 반영한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대부분 뉴스, 영화가 수위를 다투고 스포츠와 드라마가 그 뒤를 따르는 양상이다.

또 미디어나 기술간의 집중이나 통합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컨버전스 현상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DMB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시네마서비스, 싸이더스, MK픽처스 같은 대표적인 영화사들부터 각종 언론사와 IT업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MK픽처스 이은 대표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새로운 윈도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바일의 위력은 검증된 것”이라고, 이번 컨소시엄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SK텔레콤 전략콘텐츠개발 TF팀 김광섭 부장은 “원래 DMB는 방송, 우리는 인터넷이다. 둘 다 궁극적으로 커머스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는 모바일 사용자들의 콘텐츠 사용 시간을 나눠먹겠지만 그것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통합적 성격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DMB의 도입으로 대형 이동통신사는 직간접적으로 영화 투자에 발을 담그게 되었고, 영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기도 할 것이다. 결국 영화로선

KBS 프리미어 영화 1편, 거린더 차다 감독의 〈신부와 편견〉



방송과 영화의 융합과 관련해 KBS 토요일화의 또 다른 움직임은 TV와 극장이 영화 6편을 '동시개봉' 한다는 것. 국내에 미개봉한 유럽 6개국의 최근작들을 KBS의 자본으로 수입해 극장에서 상영하지만, 개봉 당일 날에 TV에서도 방영하는 'KBS 프리미어 행사'다.

새로운 수익창구와 채널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이동통신 시장과 영화시장이 겹치는 비즈니스 영역이 새로 생겨난 것이다.

### 최근 예술영화를 <토요일화>로

방송과 영화의 융합과 관련해 KBS 토요일화의 또 다른 움직임은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TV와 극장이 영화 6편을 '동시개봉' 한다는 것. 국내에 미개봉한 유럽 6개국의 최근작들을 KBS의 자본으로 수입해 극장에서 상영하지만, 개봉 당일 날에 TV에서도 방영하는 'KBS 프리미어 행사' (제공 한국방송공사 KBS, 수입 배급 Media SOSO, 후원 단성사)다. 작품들은 4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각각 1주일 간격으로 극장 <단성사>에서 상영되며, 극장 개봉 첫날인 매주 토요일에는 KBS 토요일화에서 동시에 방영된다. 극장에서는 자막 버전으로 상영하고, TV에서는 리마스터링을 거친 5.1채널의 더빙 버전으로 상영하는 등 극장과 TV 관객의 성향 차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행사는 몰락해 가고 있는 예술영화, 작가영화의 관람 기회를 방송자본이 주도해 만든다는 점이나 TV에서 5.1채널로 방영해 시청자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기술적 시도를 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부응하듯 첫 번째 행사의 영화들은 양질이다.

<슈팅 라이크 베컴>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거린더 차다 감독의 <신부와 편견>, <아메리칸 사이코> 등으로 유명한 크리스천 베일의 출연작 <머시니스트>, <야수의 날> <커먼 웰스> 등으로 익숙한 알렉스 드 라 이글레시아의 <퍼펙트 크라이미>, 2005 선댄스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한 <브라더스>, 벨기에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던 <알츠하이머 케이스>, 올해 아카데미 외국어영



유럽 영화, 안방·극장서 동시상영-KBS와 단성사가 올 4월부터 유럽 영화 6편을 소개하는 'KBS 프리미어'를 방영하기로 했다.

화상 출품작 <하와이, 오슬로> 등 6편이다.

각각 영국, 스페인,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의 영화들이며 대부분 선댄스, 토론토, 시체스 영화제 등에서 인기를 모은 2004, 2005년 작품들로 국내 극장가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영화들이라는 점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이 행사를 기획한 KBS <토요일화> 이관형 프로듀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다양성 보완이라는 차원으로 외화를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초의 계기였다. TV영화는 모두 재탕 삼탕 한물간 영화라는 오해도 불식시키고, 국내 시장 상황상 못 들어온 좋은 영화들도 보여주는 것이다. 극장 시스템에 자극이 되는 다양한 경로를 열어 보자는 측면도 있다"라고 의의를 설명한다. 또 KBS는 DMB 환경을 염두에 둔 듯 상영작들을 모바일로도 공개할 계획이다.

2005년, 한국영화는 방송과의 융합으로 제작 자본 구성과 유통 방식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올 연 말쯤이면 프랑스 『카이에 뒤 시네마』의 문제제기가 국내에도 되풀이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